



吳 洪 哲

환경 毒의 자의 귀범의 源泉

환경 오염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 환경 오염의 원인은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화학 물질의 남용이다. 이 물질들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농약과 산업 폐기물은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국은 자국의 환경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여 환경 오염을 줄여야 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활용을 실천하고,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환경 오염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 환경 오염의 원인은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화학 물질의 남용이다. 이 물질들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농약과 산업 폐기물은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국은 자국의 환경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여 환경 오염을 줄여야 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활용을 실천하고,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환경 오염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 환경 오염의 원인은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화학 물질의 남용이다. 이 물질들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농약과 산업 폐기물은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국은 자국의 환경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여 환경 오염을 줄여야 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활용을 실천하고,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환경 오염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 환경 오염의 원인은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화학 물질의 남용이다. 이 물질들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농약과 산업 폐기물은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국은 자국의 환경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여 환경 오염을 줄여야 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활용을 실천하고,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환경 오염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 환경 오염의 원인은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화학 물질의 남용이다. 이 물질들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농약과 산업 폐기물은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국은 자국의 환경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여 환경 오염을 줄여야 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활용을 실천하고,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환경 오염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 환경 오염의 원인은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화학 물질의 남용이다. 이 물질들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농약과 산업 폐기물은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국은 자국의 환경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여 환경 오염을 줄여야 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활용을 실천하고,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환경 오염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 환경 오염의 원인은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화학 물질의 남용이다. 이 물질들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농약과 산업 폐기물은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국은 자국의 환경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여 환경 오염을 줄여야 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활용을 실천하고,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환경 오염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 환경 오염의 원인은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화학 물질의 남용이다. 이 물질들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농약과 산업 폐기물은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국은 자국의 환경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여 환경 오염을 줄여야 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활용을 실천하고,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환경 오염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 환경 오염의 원인은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화학 물질의 남용이다. 이 물질들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농약과 산업 폐기물은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국은 자국의 환경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여 환경 오염을 줄여야 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활용을 실천하고,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환경 오염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 환경 오염의 원인은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화학 물질의 남용이다. 이 물질들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농약과 산업 폐기물은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국은 자국의 환경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여 환경 오염을 줄여야 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활용을 실천하고,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환경 오염의 심각성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 환경 오염의 원인은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화학 물질의 남용이다. 이 물질들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농약과 산업 폐기물은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국은 자국의 환경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여 환경 오염을 줄여야 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활용을 실천하고,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등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중앙대학교 어학원

FOREIGN LANGUAGE INSTITUTE

강의시간	3501	2854	A.V. Room	2306	3106	3306
9:20	아카데미 TOEFL	이재욱 TOEFL	Basic English	영어순례	Vocabulary 33,000	영어회화 (중급)
10:40	A	B	C	D	E	F
10:50	아카데미 TOEFL	Vocabulary 22,000	TOEFL 종합문제	해럴드 영어문법	서사 TOEFL	영작문
12:10	G	H	I	J	K	L
12:40			표준 일본어	Words People Use	TOEFL L.C.	
14:00			M	N	O	

강의기간: 12월 28일 ~ 1988년 2월 18일 (월~목)
장 소: 중앙대학교 사회과학관
수강료: 각 반 ₩ 10,000
접수기간: 12월 14일부터 (선착순 마감)
접수처: 어학원 사무실 (사회과학관 1층)

강의시간: 9:20 ~ 10:10, 10:50 ~ 11:40, 12:40 ~ 13:30
3403 미국인회화 (중급) P, 미국인회화 (중급) Q, 미국인회화 (고급) R

강의기간: 1987. 12. 28 (월) ~ 2. 18 (월~목)
수강료: ₩ 25,000
접수기간: 12월 14일부터 (선착순 마감)

이탈리아

검정색을 지배하는 냉혈의 보스!
거대한 조직만이 힘이다!
의리와 패도 술권 점철된 사냥과 야망의 갱스터

가슴팍이 터져버린 그 냉혈의 보스!
사냥과 비장의 칼을 뽐내며 살았다!
이것이 GANG FASHION이다!

시리즈 45부
영국 최고의 범죄 소설가
리처드 코딩건

20년의 범죄 소설
대작: '이탈리아' 시리즈
가장 위대한 범죄 소설가
리처드 코딩건의 걸작

사냥을 즐기는 냉혈의 보스!

AL'CAPONE

스티븐 버거/감독

장충동 동아해리드

0273-3221-2, 0252-6111-5, 0242-1461-2

Best of Best!

87년 미국 흥행 1위
87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Take My Breath Away
Song by Berlin

주연: 마이클 키튼, 제프리 리처드, 엘리자베스 헐리, 토니 스킵, 데이비드 윌리엄스

Best of Best!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 영화의 제명은?
리처드 코딩건의 범죄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흥행 11억 3000만 원에
까지 뛰어 오른 전 세계 1000만 관객이
추앙하는 2차 세계 대전 후 최고의
범죄물 139 카피의 기록을
파괴했다

765 2245-7

컴퓨터

정보처리요원 전문교육기관

프로그래밍, 정보처리기사, 압축위탁교육

매일 첫출 원요일

프로그래밍 과정
· 과목: EDPS, FORTRAN, COBOL I-II, ASSEMBLER, O.S., O.J.T
· 시간: 새벽, 오전, 오후, 야간, 야간B
· 과목별 실습수강 가능

16 BIT PC 과정
· BASIC, MS-DOS, O.A 과정
· WORD PROCESSOR

88년도 대비
정보처리 기사 1급 필기 특강

"공공에 관계 없이 응시"
· 개강: 1차 12월 11일, 2차 1월 1일
· 수석해석, 분계 중점 강의
· 수석해석, 분계 분석, 최고의 합격률
· 시식수강 학원 강사진의 교재 편찬

최고의 전통, 최고의 취업률, 최고의 시설

SPSS 통계처리
· 석사·박사 논문 처리
· 자료 입력 기계 보유 신속 처리
(수) 민원 사무부(7:35-0211-5)

주말 특강 개설
· SPSS, C, PASCAL, MS-DOS

서울 735-0211-5 (종로2가 YMCA 우편물 제1방출출) / 인천 73-7383, 74-8915 (동인천역 유천로교앞)

원장 민경현

Ω 서울컴퓨터학원

한국 노동 운동의 현대적 상황과 발전을 위한 과제

사건 일화

1. 11월 7일 새벽 1시경 서울역에서 일어난 일화... 2. 11월 7일 새벽 1시경 서울역에서 일어난 일화...

과학적 운동이념·노선정립이 당면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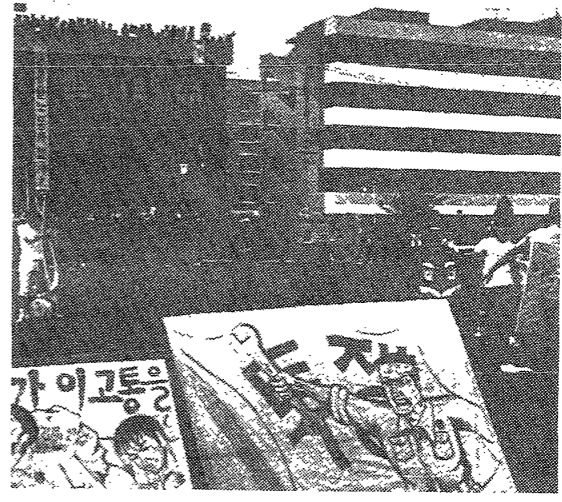
김복모수인의 계급없는 계급모수인 해결에 노력하라... 과학적 운동이념·노선정립이 당면과제

“反외세·反파쇼로 변혁투쟁전개”

반외세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라... 노동자계급의 민중의 지도적 역할수행

노동자계급의 민중의 지도적 역할수행

정제·정체투쟁의 통일전개로 일제강점기... 노동자계급의 민중의 지도적 역할수행



가이그등... (Caption describing the image)

과학적 운동이념·노선정립이 당면과제

김복모수인의 계급없는 계급모수인 해결에 노력하라... 과학적 운동이념·노선정립이 당면과제

반외세·반파쇼 투쟁을 전개하라

반외세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라... 노동자계급의 민중의 지도적 역할수행

노동자계급의 민중의 지도적 역할수행

정제·정체투쟁의 통일전개로 일제강점기... 노동자계급의 민중의 지도적 역할수행

과학적 운동이념·노선정립이 당면과제

김복모수인의 계급없는 계급모수인 해결에 노력하라... 과학적 운동이념·노선정립이 당면과제

반외세·반파쇼 투쟁을 전개하라

반외세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라... 노동자계급의 민중의 지도적 역할수행

우리時代를 위한 散文企劃... 해진서관... Advertisement for a literary collection.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1988년도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Advertisement for a scholarship program.

(주)시사영어사... 11월 12일 1일... Advertisement for a language school.

대학편입·대학원·유학·취직·교양을위한 外國語講座... TOEFL, GRE, VOCAB, LISTENING, GRAMMAR, READING... Advertisement for a foreign language course.

다시모아 MUCH·MORE... New 영등의 다재와 생동감을 배우는 배우입니다... Advertisement for a language program.

저는요, 언제라도 외국가 공부할수 있다고요!

『우리 사이가 이리 멀음은 나도 몰랐어!』
 『하얀 거품을 뿜어 온 배 주장을 들어 단숨에 마셔버리고 나의 지혜가 마치 그 거품이라도 뿜어내듯 뱉었다.』
 『무슨 소리야?』
 『마주 앉은 세진이 외로운 눈길을 보내며 혼자 지혜는 이번엔 자작으로 매주장을 채워 일포로 가져 가며』
 『자기관 사람 이제는 하늘과 땅 사이가 됐단 말야?』
 『뭐라구?』
 『하지만 세진은 여전히 감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되물었다.』
 『어머머! 하늘과 땅 사이도』

『하도 기가 막혀 평한 세진에게 그녀가 다시 건네왔다.』
 『하지만 나랑 그이는 하늘과 땅 차야! 플래시라이트로 겨우 학교 다닌 고학생과 재벌 그룹의 상속자 서열 2번 되는 주인공이냐!』
 『호호!』
 『그순간 세진은 지난 봄의 일들을 떠올렸다.』
 『교과 과목을 이수했는데 바로 4학년 졸업반이 되었기 때문에 교생 실습을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세진은 공과계통이라서 G공고로, 지혜는 인문계였으므로 M여고로 배정을 받았다.』
 『에, 우리 학교는 공부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생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E공고의 연구부장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럼 뭘 하는 학교요?』
 『순진하고도 약간의 건방진 교생들이 질문하자, 그녀의 다음 설명이 시작되었다.』
 『아! 그런 일기 공부할 시키는 학교가 아니라 웃이고, 또 학생들도 기술을 배워 취업할 목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영어나 수학같은 인문과목 실력은 많이 모자란다고 지적하셨어.』
 『그런데 이 G공고에 대한 의문은 그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교생선생님! 점심 식사지 도중 부탁합니다. 그것도 학교 생활에 속하는 일입니까?』
 『하!』
 『담임선생님의 이런 부탁을 지시를 받고 점심 시간에 학교 교실로 올라간 세진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시락을 가져 오 학생들의 질문만 안 되는 것이었다.』
 『아니! 벌써 도시락을 다 먹어버렸습니까?』
 『하! 그 학생들한테 물어 봤는데, 웬일로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하여 이런 사실을 담임선생님께 보고했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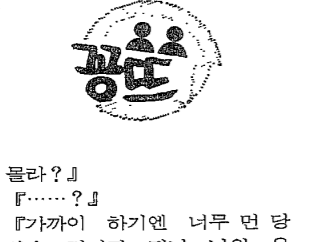
『가기를 꺼려 친구들 집을 떠돌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독립 선언을 하라 보니, 탈선으로 호르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세진이 대충 이런 교생 실습을 하고 있을 때, 지혜는 이 와 정반대였으니 「여기 학생들은 생긴 것부터가 다르다구요!」 그래서 학생 지도도 합동구요!』
 『화나 표정으로 담임선생님께서 주판하듯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자세히 보세요! 어서서부터 열람이 지나친 탓인지, 비탄중 학생이 3분의 1은 퇴학!』
 『정말 참 그런 것 같아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리구 대체적으로 키큰이 속속 쫓겨나고? 아! 서구화된 생활 양식과 식생활 때문일거예요.』
 『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정말요! 내가 23년까지』

『지혜는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이때 옆자리의 학생이 한다는 소리가』
 『아는요, 학용품은 모조리 외제품만 쓰다구요!』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수업중에 떠든다고 선생한테 주장을 들자, 발탁 입어서』
 『저 학교 안 다니면 뭘 하냐고?』
 『뭐? 뭐야?』
 『가! 마하신 선생님께서 묻자, 학생의 대꾸인즉』
 『저는요, 언제라도 외국가 가서 공부할 수 있다고요!』
 『즉 그녀의 집은 그만큼 특권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도 지혜가 가장 놀랐던 일은 종래 청소 시간에 벌어진 일. 청소 담당들에게 청소를 시켰는데, 몇몇 생이 단청을 부리고 있기에』
 『하! 학생도 청소 담당이잖아?』
 『네? 더러워서 어떻게 청소하냐고?』
 『하고 대답하는게 아닌가! 세상에! 아무리 집에서 청소를 안했어도 이럴수가 있던 말인가?』
 『아름다운 저녁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교문 앞까지 들어오는 자가용차로 귀가하는가 하면, 한디로 세진도 교생실습을 하는 G공고 학생들과는 하늘과 땅 사이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교생실습을 마치고서 세진과 지혜가 만났을 때 그들은 함께』
 『정말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들이 다는 두 학교가 그토록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말야!』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후 세진과 지혜는 어찌 되었는가?』
 『캠퍼스에 나불은 대저로 근처에도 잘 가지않던 세진은 어느덧 운동권 학우들의 모임에도 끼여들게 되었다.』
 『한편 지혜는 어느날 뜻밖에도 M여고의 교생 실습때 담임선생님이었던 미란의 편지를 받았어요!』
 『<교생선생님! 아니 교생선생님!』
 『안녕하세요? 미란이 기억나세요?』
 『오! 지우개는 우리 학교의 유령 여학생이 사다준 특이제단 말예요! 불펜이 새겨진 연필처럼 깨끗하게 잘 지워지는 귀한 지우개라고요?』
 『아! 그래요?』
 『듣고보니 한편 수줍게 싶은 말야!』

『아니! 학생! 왜 그러요?』
 『해서 가까이 다가와 물었다.』
 『교생선생님! 지우개가 없어요!』
 『네? 겨우 지우개 없어요?』
 『진짜요?』
 『하도 기가막혀 다시 이렇게 물었는데』
 『어머머! 그 지우개는 우리 학교의 유령 여학생이 사다준 특이제단 말예요! 불펜이 새겨진 연필처럼 깨끗하게 잘 지워지는 귀한 지우개라고요?』
 『아! 그래요?』
 『듣고보니 한편 수줍게 싶은 말야!』



이 은 집 <작가·복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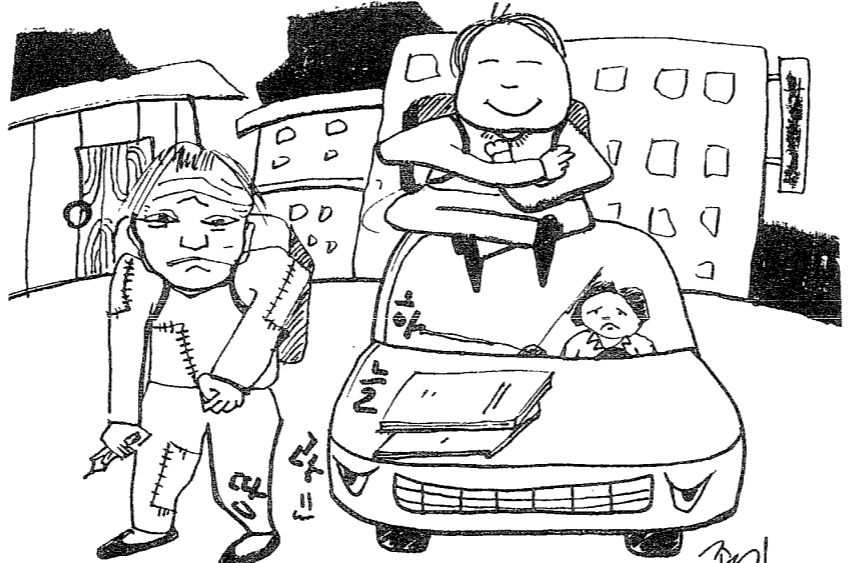


『가! 마하신 선생님께서 묻자, 학생의 대꾸인즉』
 『저는요, 언제라도 외국가 가서 공부할 수 있다고요!』
 『즉 그녀의 집은 그만큼 특권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도 지혜가 가장 놀랐던 일은 종래 청소 시간에 벌어진 일. 청소 담당들에게 청소를 시켰는데, 몇몇 생이 단청을 부리고 있기에』
 『하! 학생도 청소 담당이잖아?』
 『네? 더러워서 어떻게 청소하냐고?』
 『하고 대답하는게 아닌가! 세상에! 아무리 집에서 청소를 안했어도 이럴수가 있던 말인가?』
 『아름다운 저녁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교문 앞까지 들어오는 자가용차로 귀가하는가 하면, 한디로 세진도 교생실습을 하는 G공고 학생들과는 하늘과 땅 사이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교생실습을 마치고서 세진과 지혜가 만났을 때 그들은 함께』
 『정말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들이 다는 두 학교가 그토록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말야!』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후 세진과 지혜는 어찌 되었는가?』
 『캠퍼스에 나불은 대저로 근처에도 잘 가지않던 세진은 어느덧 운동권 학우들의 모임에도 끼여들게 되었다.』
 『한편 지혜는 어느날 뜻밖에도 M여고의 교생 실습때 담임선생님이었던 미란의 편지를 받았어요!』
 『<교생선생님! 아니 교생선생님!』
 『안녕하세요? 미란이 기억나세요?』
 『오! 지우개는 우리 학교의 유령 여학생이 사다준 특이제단 말예요! 불펜이 새겨진 연필처럼 깨끗하게 잘 지워지는 귀한 지우개라고요?』
 『아! 그래요?』
 『듣고보니 한편 수줍게 싶은 말야!』

『하도 기가 막혀 평한 세진에게 그녀가 다시 건네왔다.』
 『하지만 나랑 그이는 하늘과 땅 차야! 플래시라이트로 겨우 학교 다닌 고학생과 재벌 그룹의 상속자 서열 2번 되는 주인공이냐!』
 『호호!』
 『그순간 세진은 지난 봄의 일들을 떠올렸다.』
 『교과 과목을 이수했는데 바로 4학년 졸업반이 되었기 때문에 교생 실습을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세진은 공과계통이라서 G공고로, 지혜는 인문계였으므로 M여고로 배정을 받았다.』
 『에, 우리 학교는 공부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생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E공고의 연구부장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럼 뭘 하는 학교요?』
 『순진하고도 약간의 건방진 교생들이 질문하자, 그녀의 다음 설명이 시작되었다.』
 『아! 그런 일기 공부할 시키는 학교가 아니라 웃이고, 또 학생들도 기술을 배워 취업할 목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영어나 수학같은 인문과목 실력은 많이 모자란다고 지적하셨어.』
 『그런데 이 G공고에 대한 의문은 그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교생선생님! 점심 식사지 도중 부탁합니다. 그것도 학교 생활에 속하는 일입니까?』
 『하!』
 『담임선생님의 이런 부탁을 지시를 받고 점심 시간에 학교 교실로 올라간 세진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시락을 가져 오 학생들의 질문만 안 되는 것이었다.』
 『아니! 벌써 도시락을 다 먹어버렸습니까?』
 『하! 그 학생들한테 물어 봤는데, 웬일로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하여 이런 사실을 담임선생님께 보고했더니』

『가기를 꺼려 친구들 집을 떠돌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독립 선언을 하라 보니, 탈선으로 호르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세진이 대충 이런 교생 실습을 하고 있을 때, 지혜는 이 와 정반대였으니 「여기 학생들은 생긴 것부터가 다르다구요!」 그래서 학생 지도도 합동구요!』
 『화나 표정으로 담임선생님께서 주판하듯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자세히 보세요! 어서서부터 열람이 지나친 탓인지, 비탄중 학생이 3분의 1은 퇴학!』
 『정말 참 그런 것 같아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리구 대체적으로 키큰이 속속 쫓겨나고? 아! 서구화된 생활 양식과 식생활 때문일거예요.』
 『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정말요! 내가 23년까지』

『지혜는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이때 옆자리의 학생이 한다는 소리가』
 『아는요, 학용품은 모조리 외제품만 쓰다구요!』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수업중에 떠든다고 선생한테 주장을 들자, 발탁 입어서』
 『저 학교 안 다니면 뭘 하냐고?』
 『뭐? 뭐야?』
 『가! 마하신 선생님께서 묻자, 학생의 대꾸인즉』
 『저는요, 언제라도 외국가 가서 공부할 수 있다고요!』
 『즉 그녀의 집은 그만큼 특권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도 지혜가 가장 놀랐던 일은 종래 청소 시간에 벌어진 일. 청소 담당들에게 청소를 시켰는데, 몇몇 생이 단청을 부리고 있기에』
 『하! 학생도 청소 담당이잖아?』
 『네? 더러워서 어떻게 청소하냐고?』
 『하고 대답하는게 아닌가! 세상에! 아무리 집에서 청소를 안했어도 이럴수가 있던 말인가?』
 『아름다운 저녁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교문 앞까지 들어오는 자가용차로 귀가하는가 하면, 한디로 세진도 교생실습을 하는 G공고 학생들과는 하늘과 땅 사이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교생실습을 마치고서 세진과 지혜가 만났을 때 그들은 함께』
 『정말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들이 다는 두 학교가 그토록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말야!』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후 세진과 지혜는 어찌 되었는가?』
 『캠퍼스에 나불은 대저로 근처에도 잘 가지않던 세진은 어느덧 운동권 학우들의 모임에도 끼여들게 되었다.』
 『한편 지혜는 어느날 뜻밖에도 M여고의 교생 실습때 담임선생님이었던 미란의 편지를 받았어요!』
 『<교생선생님! 아니 교생선생님!』
 『안녕하세요? 미란이 기억나세요?』
 『오! 지우개는 우리 학교의 유령 여학생이 사다준 특이제단 말예요! 불펜이 새겨진 연필처럼 깨끗하게 잘 지워지는 귀한 지우개라고요?』
 『아! 그래요?』
 『듣고보니 한편 수줍게 싶은 말야!』



『앤요, 학용품은 모조리 외제품만 쓰다구요!』
 『야! 우리가 어찌다 하늘과 땅 사이가 됐지.』
 『단간 셋방에 3대가 사는 가정도 많습디다』

『하! 그 학생들한테 물어 봤는데, 웬일로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하여 이런 사실을 담임선생님께 보고했더니』
 『가! 마하신 선생님께서 묻자, 학생의 대꾸인즉』
 『저는요, 언제라도 외국가 가서 공부할 수 있다고요!』
 『즉 그녀의 집은 그만큼 특권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도 지혜가 가장 놀랐던 일은 종래 청소 시간에 벌어진 일. 청소 담당들에게 청소를 시켰는데, 몇몇 생이 단청을 부리고 있기에』
 『하! 학생도 청소 담당이잖아?』
 『네? 더러워서 어떻게 청소하냐고?』
 『하고 대답하는게 아닌가! 세상에! 아무리 집에서 청소를 안했어도 이럴수가 있던 말인가?』
 『아름다운 저녁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교문 앞까지 들어오는 자가용차로 귀가하는가 하면, 한디로 세진도 교생실습을 하는 G공고 학생들과는 하늘과 땅 사이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교생실습을 마치고서 세진과 지혜가 만났을 때 그들은 함께』
 『정말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들이 다는 두 학교가 그토록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말야!』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후 세진과 지혜는 어찌 되었는가?』
 『캠퍼스에 나불은 대저로 근처에도 잘 가지않던 세진은 어느덧 운동권 학우들의 모임에도 끼여들게 되었다.』
 『한편 지혜는 어느날 뜻밖에도 M여고의 교생 실습때 담임선생님이었던 미란의 편지를 받았어요!』
 『<교생선생님! 아니 교생선생님!』
 『안녕하세요? 미란이 기억나세요?』
 『오! 지우개는 우리 학교의 유령 여학생이 사다준 특이제단 말예요! 불펜이 새겨진 연필처럼 깨끗하게 잘 지워지는 귀한 지우개라고요?』
 『아! 그래요?』
 『듣고보니 한편 수줍게 싶은 말야!』

『하! 그 학생들한테 물어 봤는데, 웬일로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하여 이런 사실을 담임선생님께 보고했더니』
 『가! 마하신 선생님께서 묻자, 학생의 대꾸인즉』
 『저는요, 언제라도 외국가 가서 공부할 수 있다고요!』
 『즉 그녀의 집은 그만큼 특권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도 지혜가 가장 놀랐던 일은 종래 청소 시간에 벌어진 일. 청소 담당들에게 청소를 시켰는데, 몇몇 생이 단청을 부리고 있기에』
 『하! 학생도 청소 담당이잖아?』
 『네? 더러워서 어떻게 청소하냐고?』
 『하고 대답하는게 아닌가! 세상에! 아무리 집에서 청소를 안했어도 이럴수가 있던 말인가?』
 『아름다운 저녁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교문 앞까지 들어오는 자가용차로 귀가하는가 하면, 한디로 세진도 교생실습을 하는 G공고 학생들과는 하늘과 땅 사이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교생실습을 마치고서 세진과 지혜가 만났을 때 그들은 함께』
 『정말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들이 다는 두 학교가 그토록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말야!』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후 세진과 지혜는 어찌 되었는가?』
 『캠퍼스에 나불은 대저로 근처에도 잘 가지않던 세진은 어느덧 운동권 학우들의 모임에도 끼여들게 되었다.』
 『한편 지혜는 어느날 뜻밖에도 M여고의 교생 실습때 담임선생님이었던 미란의 편지를 받았어요!』
 『<교생선생님! 아니 교생선생님!』
 『안녕하세요? 미란이 기억나세요?』
 『오! 지우개는 우리 학교의 유령 여학생이 사다준 특이제단 말예요! 불펜이 새겨진 연필처럼 깨끗하게 잘 지워지는 귀한 지우개라고요?』
 『아! 그래요?』
 『듣고보니 한편 수줍게 싶은 말야!』

『가! 마하신 선생님께서 묻자, 학생의 대꾸인즉』
 『저는요, 언제라도 외국가 가서 공부할 수 있다고요!』
 『즉 그녀의 집은 그만큼 특권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도 지혜가 가장 놀랐던 일은 종래 청소 시간에 벌어진 일. 청소 담당들에게 청소를 시켰는데, 몇몇 생이 단청을 부리고 있기에』
 『하! 학생도 청소 담당이잖아?』
 『네? 더러워서 어떻게 청소하냐고?』
 『하고 대답하는게 아닌가! 세상에! 아무리 집에서 청소를 안했어도 이럴수가 있던 말인가?』
 『아름다운 저녁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교문 앞까지 들어오는 자가용차로 귀가하는가 하면, 한디로 세진도 교생실습을 하는 G공고 학생들과는 하늘과 땅 사이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교생실습을 마치고서 세진과 지혜가 만났을 때 그들은 함께』
 『정말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들이 다는 두 학교가 그토록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말야!』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후 세진과 지혜는 어찌 되었는가?』
 『캠퍼스에 나불은 대저로 근처에도 잘 가지않던 세진은 어느덧 운동권 학우들의 모임에도 끼여들게 되었다.』
 『한편 지혜는 어느날 뜻밖에도 M여고의 교생 실습때 담임선생님이었던 미란의 편지를 받았어요!』
 『<교생선생님! 아니 교생선생님!』
 『안녕하세요? 미란이 기억나세요?』
 『오! 지우개는 우리 학교의 유령 여학생이 사다준 특이제단 말예요! 불펜이 새겨진 연필처럼 깨끗하게 잘 지워지는 귀한 지우개라고요?』
 『아! 그래요?』
 『듣고보니 한편 수줍게 싶은 말야!』

『가! 마하신 선생님께서 묻자, 학생의 대꾸인즉』
 『저는요, 언제라도 외국가 가서 공부할 수 있다고요!』
 『즉 그녀의 집은 그만큼 특권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도 지혜가 가장 놀랐던 일은 종래 청소 시간에 벌어진 일. 청소 담당들에게 청소를 시켰는데, 몇몇 생이 단청을 부리고 있기에』
 『하! 학생도 청소 담당이잖아?』
 『네? 더러워서 어떻게 청소하냐고?』
 『하고 대답하는게 아닌가! 세상에! 아무리 집에서 청소를 안했어도 이럴수가 있던 말인가?』
 『아름다운 저녁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교문 앞까지 들어오는 자가용차로 귀가하는가 하면, 한디로 세진도 교생실습을 하는 G공고 학생들과는 하늘과 땅 사이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교생실습을 마치고서 세진과 지혜가 만났을 때 그들은 함께』
 『정말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들이 다는 두 학교가 그토록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말야!』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후 세진과 지혜는 어찌 되었는가?』
 『캠퍼스에 나불은 대저로 근처에도 잘 가지않던 세진은 어느덧 운동권 학우들의 모임에도 끼여들게 되었다.』
 『한편 지혜는 어느날 뜻밖에도 M여고의 교생 실습때 담임선생님이었던 미란의 편지를 받았어요!』
 『<교생선생님! 아니 교생선생님!』
 『안녕하세요? 미란이 기억나세요?』
 『오! 지우개는 우리 학교의 유령 여학생이 사다준 특이제단 말예요! 불펜이 새겨진 연필처럼 깨끗하게 잘 지워지는 귀한 지우개라고요?』
 『아! 그래요?』
 『듣고보니 한편 수줍게 싶은 말야!』

『가! 마하신 선생님께서 묻자, 학생의 대꾸인즉』
 『저는요, 언제라도 외국가 가서 공부할 수 있다고요!』
 『즉 그녀의 집은 그만큼 특권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도 지혜가 가장 놀랐던 일은 종래 청소 시간에 벌어진 일. 청소 담당들에게 청소를 시켰는데, 몇몇 생이 단청을 부리고 있기에』
 『하! 학생도 청소 담당이잖아?』
 『네? 더러워서 어떻게 청소하냐고?』
 『하고 대답하는게 아닌가! 세상에! 아무리 집에서 청소를 안했어도 이럴수가 있던 말인가?』
 『아름다운 저녁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교문 앞까지 들어오는 자가용차로 귀가하는가 하면, 한디로 세진도 교생실습을 하는 G공고 학생들과는 하늘과 땅 사이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교생실습을 마치고서 세진과 지혜가 만났을 때 그들은 함께』
 『정말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들이 다는 두 학교가 그토록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말야!』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후 세진과 지혜는 어찌 되었는가?』
 『캠퍼스에 나불은 대저로 근처에도 잘 가지않던 세진은 어느덧 운동권 학우들의 모임에도 끼여들게 되었다.』
 『한편 지혜는 어느날 뜻밖에도 M여고의 교생 실습때 담임선생님이었던 미란의 편지를 받았어요!』
 『<교생선생님! 아니 교생선생님!』
 『안녕하세요? 미란이 기억나세요?』
 『오! 지우개는 우리 학교의 유령 여학생이 사다준 특이제단 말예요! 불펜이 새겨진 연필처럼 깨끗하게 잘 지워지는 귀한 지우개라고요?』
 『아! 그래요?』
 『듣고보니 한편 수줍게 싶은 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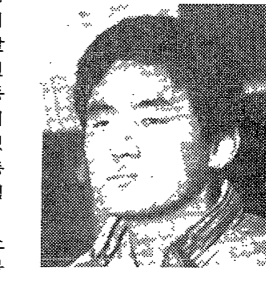
신임총대의원 의장 서귀환

『民族集團, 자존심 회복 내 총이여 진군하라』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13일 제 20대 총대의원 의장에 당선된 서귀환(경제3)을, 학내최고의결기구로서 총동국인의 의사를 결집, 열을 모아 총대의원 의장을 선출하는 서귀환은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기호1번의 낙선에 대해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지 않다』는 겸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귀환은 회칙개정과 내년 3월에 열리는 총학생선거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며, 내년초에는 건전한 중국어권의 수업을 위해 중국어교수의 임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환은 특히 학생회비·예산감축을 저지하여 민주적인 학생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학내최고의결기구로서 총동국인의 의사를 결집, 열을 모아 총대의원 의장을 선출하는 서귀환은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기호1번의 낙선에 대해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지 않다』는 겸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귀환은 회칙개정과 내년 3월에 열리는 총학생선거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며, 내년초에는 건전한 중국어권의 수업을 위해 중국어교수의 임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환은 특히 학생회비·예산감축을 저지하여 민주적인 학생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학내최고의결기구로서 총동국인의 의사를 결집, 열을 모아 총대의원 의장을 선출하는 서귀환은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기호1번의 낙선에 대해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지 않다』는 겸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귀환은 회칙개정과 내년 3월에 열리는 총학생선거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며, 내년초에는 건전한 중국어권의 수업을 위해 중국어교수의 임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환은 특히 학생회비·예산감축을 저지하여 민주적인 학생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학내최고의결기구로서 총동국인의 의사를 결집, 열을 모아 총대의원 의장을 선출하는 서귀환은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기호1번의 낙선에 대해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지 않다』는 겸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귀환은 회칙개정과 내년 3월에 열리는 총학생선거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며, 내년초에는 건전한 중국어권의 수업을 위해 중국어교수의 임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환은 특히 학생회비·예산감축을 저지하여 민주적인 학생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학내최고의결기구로서 총동국인의 의사를 결집, 열을 모아 총대의원 의장을 선출하는 서귀환은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기호1번의 낙선에 대해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지 않다』는 겸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귀환은 회칙개정과 내년 3월에 열리는 총학생선거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며, 내년초에는 건전한 중국어권의 수업을 위해 중국어교수의 임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환은 특히 학생회비·예산감축을 저지하여 민주적인 학생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이 은 집 <작가·복고교사>

東國漫評



◇ 한국적 특수상항? ! ...

재학생 여러분의 각종 소식과 알림을 위한 「음악광장」은 언제나 열려있는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출발방」 「광고」 등 자세한 사항은 본처총무부 문화기획과에서 그밖의 「음악광장」을 비롯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문화마진
 『유리 도시』출 공연
 배정해를 비롯한 13명의 출연으로 근무용단 제4회 정기공연 「유리 도시」가 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랐습니다. 현 산업사회에서의 인간성이 상실된 삶을 거부하려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공연시간은 오는 21일, 22일 양일간 오후 6시 1회 공연.

신문활동
 『제24회 백범강좌』
 『제24회 백범강좌』
 『제24회 백범강좌』

동약廣場

『제24회 백범강좌』
 『제24회 백범강좌』
 『제24회 백범강좌』

성균관대성균교회공연
 『제24회 백범강좌』
 『제24회 백범강좌』
 『제24회 백범강좌』

代總 權限 확대·동발추출 신설

學聯 사제 학회는 과학생회로 전환

해설

회계년도·선거시기 바꿔
일부 학생 의결정족수외 의의제기

【서울 17일 특파원 보도】 서울대학교 학생회(이하 학회)가 1955년 회계년도를 1955년 11월 1일부터 1956년 10월 31일까지로 바꾸고, 선거시기를 1955년 11월 15일부터 1956년 1월 15일까지로 바꾸는 결의안을 17일 오후 2시 30분 열린 학회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는 학회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결의안은 85표 찬성, 15표 반대, 1표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결의안에는 "회계년도를 1955년 11월 1일부터 1956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선거시기를 1955년 11월 15일부터 1956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결의안에는 "의결정족수외 의의제기"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학회 임원들이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학회 운영에 필요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학회 총회장은 "이번 결의안은 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廣濟 시계탐진립모듬운동 집회

캘리포니아 10주년 기념사업 열람이로

【서울 17일 특파원 보도】 서울대학교 학생회(이하 학회)가 1955년 회계년도를 1955년 11월 1일부터 1956년 10월 31일까지로 바꾸고, 선거시기를 1955년 11월 15일부터 1956년 1월 15일까지로 바꾸는 결의안을 17일 오후 2시 30분 열린 학회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는 학회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결의안은 85표 찬성, 15표 반대, 1표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결의안에는 "회계년도를 1955년 11월 1일부터 1956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선거시기를 1955년 11월 15일부터 1956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결의안에는 "의결정족수외 의의제기"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학회 임원들이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학회 운영에 필요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학회 총회장은 "이번 결의안은 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韓·日 국제 학술회의

산림·자연연구 주제로

【서울 17일 특파원 보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일본 국제 학술 회의'가 1955년 11월 15일부터 1956년 1월 1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산림학,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교환하고, 학제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개최된다. 주요 연구 주제는 산림 생태학, 산림 경영, 자연과학의 응용 연구 등이다.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회의 기간 동안에는 학술 발표, 세미나, 그리고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포함될 예정이다.

총대이원회의장에 선권원

부의장원 관대원원관 당선되

【서울 17일 특파원 보도】 서울대학교 총대이원회의가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권원(권영)이 총대이원회의장에, 부의장원 관대원원관(관대원)이 당선되었다.

총대이원회의는 학회 임원들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이날 회의에는 학회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권원과 관대원원관의 당선은 학회 임원들의 지지를 반영하고 있다.

권원은 "이번 총대이원회의는 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밝혔다.

제외의 무의무의

政治不在 현상 신랄히 풍자

【서울 17일 특파원 보도】 서울대학교 학생회(이하 학회)가 1955년 회계년도를 1955년 11월 1일부터 1956년 10월 31일까지로 바꾸고, 선거시기를 1955년 11월 15일부터 1956년 1월 15일까지로 바꾸는 결의안을 17일 오후 2시 30분 열린 학회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는 학회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결의안은 85표 찬성, 15표 반대, 1표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결의안에는 "회계년도를 1955년 11월 1일부터 1956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선거시기를 1955년 11월 15일부터 1956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결의안에는 "의결정족수외 의의제기"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학회 임원들이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학회 운영에 필요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학회 총회장은 "이번 결의안은 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慶州 서클연합회 폐막

노래감습·전시회등 열려

【서울 17일 특파원 보도】 서울대학교 학생회(이하 학회)가 1955년 회계년도를 1955년 11월 1일부터 1956년 10월 31일까지로 바꾸고, 선거시기를 1955년 11월 15일부터 1956년 1월 15일까지로 바꾸는 결의안을 17일 오후 2시 30분 열린 학회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는 학회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결의안은 85표 찬성, 15표 반대, 1표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결의안에는 "회계년도를 1955년 11월 1일부터 1956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선거시기를 1955년 11월 15일부터 1956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결의안에는 "의결정족수외 의의제기"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학회 임원들이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학회 운영에 필요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학회 총회장은 "이번 결의안은 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학성自治 문제조차도 이렇게 「잡음」이 많아...

【서울 17일 특파원 보도】 서울대학교 학생회(이하 학회)가 1955년 회계년도를 1955년 11월 1일부터 1956년 10월 31일까지로 바꾸고, 선거시기를 1955년 11월 15일부터 1956년 1월 15일까지로 바꾸는 결의안을 17일 오후 2시 30분 열린 학회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는 학회 임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결의안은 85표 찬성, 15표 반대, 1표 기권으로 통과되었다. 결의안에는 "회계년도를 1955년 11월 1일부터 1956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선거시기를 1955년 11월 15일부터 1956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결의안에는 "의결정족수외 의의제기"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학회 임원들이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학회 운영에 필요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학회 총회장은 "이번 결의안은 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순한 화장품은 어떤 것일까요?



순한 화장품 —
 느낌으로 선택할까,
 효과로 선택할까
 피부는 스스로 보호하고 아름다워
 자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역할은 피부의 젊음을
 지켜주고 아름다워지려는 피부

자신의 기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부의 작용인 보호작용·흡수작용·호흡작용등
 피부 기능에 역행하는 화장품은 순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을 피부가 잘 받아들이어서
 그 성분의 도움으로 피부는 외부로부터 보호받고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피부의 친화력, 피부안정성, 피부보호력 — 이 세가지
 조건이 갖춰진 화장품을 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한 화장품은 피부의 느낌뿐만 아니라,
 피부 내부까지도 잘 스며들기 때문에 그 효과 역시
 높습니다.

**아무리 비싼 화장품도
 피부에 잘 맞고 순하게 작용해야...**
 개인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의 피부는
 적정시기(20세이후)가 되면 피부의 기능이 저하되어
 노화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피부상태에 적합한 화장품으로, 피부가
 고풍 건강할 때부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피부손질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영양·미용성분이 함유된 순한 화장품으로 피부
 본래의 기능을 찾고주고 언제나자나 아름다운 피부를
 간직합니다.
 나의 연령에 적합한 화장품 —
 나의 피부에 필요한 성분들이 적절하게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 —
 내 피부에 잘 맞는 화장품을 또한, 순한 화장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한 화장품으로 피부의 건강과 젊음을 일찍부터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기술력만이
 순도높은 화장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에는 안전한다, 어떻게 하면 피부에 잘 스며들까,
 그리고 함유된 성분까지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
 화장품에 쓰인 원료들을 추출해내려면 많은 연구인력과
 수많은 단계의 연구·실험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순도높은 화장품 원료의 개발은 오랜 기간동안
 쌓아올린 기술력과 경험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더 순도높게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의 화장품 기술은 첨단 기술의 차원에
 이르렀고, 그 기술력으로 우리피부에
 잘 맞는 "고순도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화장품정보로 "순한
 화장품"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아오레화장품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대평양화학

어로니

향 <50>



금빛 은빛

洪構 著
同門 洪構
約(국문과주)
시인의 작품
집「금빛 은
빛」이 創作
社를 통해 출
간되었다. 「나의 시」에서 「우리의 시」로 나아감을 위해 연작을 그려 보냈던 것을 엮어 내고 있는데 「詩序」에서 「탑사발」까지 총 65여편의 작품세계는 시를 원한과 사슴의 노래를 부르고, 서로 응시해주고 격려해주는 화해와 만남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創作社刊·200면·2천원>
마르크스주의와 교육이론

마단사람들

최근 교육사회화 분야에서 파주되고있는 현실학적 접근과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을 폭넓게 삼각, 소상하게 소개하고있는 이 책은 총 2부로 되어있다. 제1부에서는 교육에 대한 현실학적 접근의 특징을 개관하고 있으며, 제2부에서는 교육사회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마르크스의 이론을 제시하고있다.
<한길사刊·268면·3천3백원>
지역사회와 민족운동

지역사회와 민족운동

지방사회연구소 編輯
「지역사회와 민족운동」은 민족운동의 민족운동의 지역적 전개에 있어서 올바른 세계관을 선 과학적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작업의 일환을 담당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사회연구소에속한 학문연구자들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묶어 보낸 대중적 학술잡지로서 그 장단점이다.
<한길사刊·344면·4천원>

예술과 만나는 「문화 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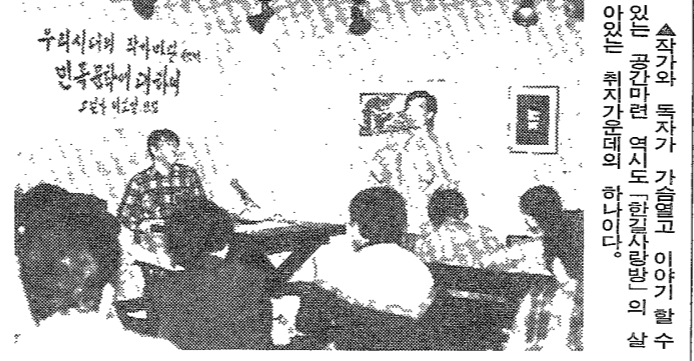
지난 84년 3월에 「우리마당」(신촌)이라는 이름 아래 6개의 소모임들이 모여 뜻을 같이하는 문화예술인들의 공간 마련이 있었음은 문화계에 신선한 소식으로 전해졌었다.
즉, 국악의 「한가락」 단련영화의 「빛 그림연구회」 민속연구모임의 「풍물패」 연극인 회합들의 「후일 새」 조각담사위주의 「국토기행모임」 大學연극의 「울림」 등이 민족문



화의 올바른 계승과 예술영역의 폭을 아울러 넓혀 보려는 취지에서 열었던 토론회와 「우리마당」의 자리모임이 바로 「우리마당」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비영리적 문화공간의 확대보급이 관심과 호응을 얻으면서 그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점은 사회의 문화 순화작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획일적 대량소비문화

중토에 침수되어 버린 각종 휴식공간에 반기라도 들 듯이 조용히 일어서 목격한 무거운 정적되어 가는 한 문화공간을 찾아본 본 記者의 눈에는 우선 좌는 무대의 약간 높은 연단과 판화작품과 詩 讀로 장식된 벽, 그리고 시집과 각종 사회과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어 이를 기다리는 진열장은 40여평 남짓한 공간이 다른 곳 (카페)과 다름을 감지케 해주었다.
종로구 관철동에 위치한 「한길사랑방」이곳 역시 앞서 말한 「문화공간」의 취지 아래 지난 9월28일에 문을 연 「휴식 공간」이다. 「문화의 폭 넓은 수렴의 행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문화사업이라 하지만 실제, 우리가 지향하는 손쉽게 찾아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더불어 자에게 관심이 있는 예술분야는 물론 타 분야까지 관심의 폭을 넓히는데 자유스러움을 제공 하는 문화공간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을 나다」라고 운영방침을 밝히는 정창덕 (한길사랑방 대표) 씨. 「한길 사랑방」에서는 매주 두 차례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마련, 도민들의 문턱없는 「문화사랑

방」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대의 작가마당」, 「화요 작가마당」이라 하여 매주 화요일



「보통사람들의 보통이야기가 엮여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획일적 소비문화를 씻어내는 「열린공간」으로서 일일담방

와 함께 매주 금요일 같은 시간대에 「금요예술마당」, 「금요토론마당」 등의 자리로서 다 같이 어울려 인사와 환호, 관화이야기 등을 나누며 독서토론을 통해 자기 나름의 문화세계를 점검해 보는 토론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공동출자자 12인 (이들은

대한 열린 토론의 시간을 작가와 독자들 사이에 가진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양성우 (시인) 윤정모 (소설가) 씨등의만 남과 같은 중견작가 초청뿐만 아니라 후배작가들에 따라 일대 시인들의 만남, 여류작가들의 만남, 신촌문화출신들과의 만남 등 특색 있는 정기간 계획까지 세워두고 알찬 기획이 되기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고 귀띔해왔다. 이

작가, 회사원, 상업인등으로 이루어져있다.)이 외에 회원이 4백여 명에 이르렀는데 대학생들의 참여도 극히 빈곤한 상태라고 말하는 차기호 (인천대·기계공학) 씨는 「어디에서나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독특한 분위기의 생생한 공간인 이러한 모임에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그 의미적 가치를 더해나간다면 또 하나의 긍정적인 「대학문화」로 뿌리내리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며 아쉬워 한다. 우리는 흔히 외국의 앞사가는 「문화선진」에 대해 일종의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카페문화」 「사중문화」로 지칭되는 그 부리는 보통사람들 생활 구성요소까지 파고들어 그 나라의 문화척도의 기준대가 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선 동등의 고덕거침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문화란 우리 삶과 같은 도둑으로 걸어가는 무더리의 하나라 하여 비유될 수 있음에 우리가 몇몇데 더 걸어가 보기도 했다. 「여성문고」 회원들이 여성학이나 국사 그리고 신앙생활의 자리로 이용하는 카페 「藏」(양주정동), 異興, 趙輝華시인들과의 만남을 가지며 자작시 발표회를 매주 수요일 하오 7시에 열리고 있는 「시집토론회」(해동동), 하루 3회에 걸쳐 외국단편영화 (16mm)를 상영, 외국인 영화예술의 보다 가까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8과 2분의 1」(동성동), 순수이마루 이 국내작가들의 8mm영화를 하루 5회씩 상영 서로의 미묘한 부분을 점검하는 동시에 자기의 예술세계를 발표하는 「18분의 1초」(당산동), 그리고 익히 대학가에 알려져 있는 「심어름 하우스」의 자유로운 노래표현등 기존의 모든 휴식공간에 걸주어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점차 그 수를 늘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종 단체에서의 강연과 강습, 토크쇼 등이 들어오는 해외정보의 불합통시에 우리가 올바른 판단으로 걸릴 수 있는 여파를 갖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직접 뛰어들어 참여와 생각하는 비판자세에서 그 힘을 구하려는 생활자세가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오늘날의 문화적 공백과 현상이 아닐까 진단해 보면 우리 주위에 허다, 들끓어 일어나는 「문화공간」의 씩어 관심을 기울이는 보통사람들의 보통 생각들이 많이있길 기대해 본다.
허 윤
<本社 문화부장>

삼년 동안 문헌된 나의 의식

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한 사람에게 꼭 전해주어야만, 나의 군 생활은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른 새벽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뛰는 구부림에서 도망칠 한도봉이여 해마다 듣는 잠꼬대의 끈질긴 생명력을 찬사를 보내고 하였습니다. 정신없이 일몰시절 어느 친구가 보내준 셀리의 메시지가 기억 나기도 합니다.
「겨울이 오면 불도 결코 멀지 않았고...」
그만큼 정신없이 가는데 시간은 흘러 사회로 나갈수 있는 때를 맞이 하였습니다. 군생활하며 느낀것 중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변화하고 움직이는 가운데 조화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내재 하는 것들은 소중히 보호하는 침묵이 있습니다.
민주! 지금도 알수 없는 것은 타인의 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혼자 괴로워 하는게 생인이 하는 생각, 광 박에는 푸 연 신안개가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꿈 잊으면 희망은 꿈이 들어 단잠에서 깨어 일한 하루일과를 시작 할 것입니다.
간밤에 군인들은 꿈에서 나가고 향해 두고는 사랑하는 이도 만났는데도 주름살 패인 어머니의 형상은 얼굴도 보았을 것이고, 형님 아우 친구들과 벗을 곳도 거닐어 보았을 테지요.
가실때,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몰라 무어라 말할수 없지만, 돌진강의 生活 精神이 이 글이 꼭 민주의 책상에 놓이길 바라며 두서 없는 글 이란 줄입니다.
전선에서 친구가,
87년 11월 0 일
김영호 <인문대 미술과>

국제관계와 역사의 관계조명

백경남 著 「國際關係史」
이 책은 근대 국제사회의 형성부터 전후 국가체제의 기틀까지를 전 6부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데, 현대 국제질서의 기본적인 이해와 틀과 관련된 세계정세 속에서 국제관계의 움직임에 대한 기본시각을 제공해 준다. 國際政治는 적어도 2개국 이

투고함

민주에게!
상경을 지난 지금은 무전기의 수신율이 어둠을 헤치고 개울가

권력과 권력

권력은 권력이라 크게 마르지는 않은데, 권력의 본질상 권력은 또 다른 권력을 부른다. 그래서 결국 모든 권력이 가장 큰 권력적 폭력을 행사 하는 자에게 장악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권력을 장악한 자에게도 또 피지배자가 된 사람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20여년간의 군부독재에 시달리며 우리가 직접 경험한 사실들이 이를 말해준다.
권력에 의한 권력은 지양되어야 한다. 진정한 힘- 바로 권력의 주체인 민중의 결집된 힘으로 모든 비인간적 폭력을 배제하고 참된 권력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유세가의 폭력사태는 참으로 유감이다. 우리는 잊지말아야 한다. 폭력을 배제한 참된 권력은 민중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도 군부정권은 끝나지 않았음을...
<勝>

독력과 권력

위기와 공포에 직면하고 있을 때 권력은 권력이라 크게 마르지는 않은데, 권력의 본질상 권력은 또 다른 권력을 부른다. 그래서 결국 모든 권력이 가장 큰 권력적 폭력을 행사 하는 자에게 장악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권력을 장악한 자에게도 또 피지배자가 된 사람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20여년간의 군부독재에 시달리며 우리가 직접 경험한 사실들이 이를 말해준다.
권력에 의한 권력은 지양되어야 한다. 진정한 힘- 바로 권력의 주체인 민중의 결집된 힘으로 모든 비인간적 폭력을 배제하고 참된 권력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유세가의 폭력사태는 참으로 유감이다. 우리는 잊지말아야 한다. 폭력을 배제한 참된 권력은 민중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도 군부정권은 끝나지 않았음을...
<勝>

민주의 시대

한 미국의 회복을 표방한 레이건 미국대통령의 對蘇노선 (힘의 정책)으로 인해 국제관계는 신냉戰시대로 이행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이와같이 대립강과 긴장완화가 빈번히 가면서 출현하는 불안정성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관계인 것이다. 이러한 국제관계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처럼 자국의 국익을 획득·유지하기 위해 보호주의, 군사력 강화 등을 서슴치 않을 정도로 참여하게 대립되어있는 실정이다.
올해 「民主主義論」을 펴낸 바 있는 본교 정치외교학과 白宗男교수가 국제관계의 역사적 과정에서 교착·정리한 「國際關係史」를 내놓았다.
<약술부>

종합 일렉트로닉스 세계 No.1

GoldStar Technodia

금성의 尖端技術이 펼쳐가는樂園 테크노피아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테크노피아의 실현이 곧 나의 과제로 변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바로 첨단 VCR용 IC 회로를 설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전공이 비록 전자공학이긴 했으나 첨단 IC 회로를 설계하라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실제 연구원들의 끈질긴 집념을 피부로 느끼면서 「콜렉터전압」을 따지고 「바이스」가 어떻게 하면서 나는 어드레스 IC의 마이크로 세계를 만끽하는 팀원가가 되어있음을 발견하곤 한다. VCR의 선명화면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개발한 GS20111 Servo Control IC들을 떠올리고는, 이것이 바로 테크노피아를 실현하는 또 하나의 길이라 생각하며 뿌듯한 감회에 젖어본다. 아우들이여! 우리 연구소 우리사회는 바로 아우들의 명석한 지혜와 성실한 헌신, 그리고 끈질긴 집념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꼭 명부에둔다.

최첨단 기술의 상징

GS 금성

•금성사•금성반도체•금성소프트웨어•금성부품•금성통신•금성전기•금성알프스전자•금성정밀•금성산전•금성계전•금성기전•금성하니셀•금성전선